

성명	이현호	수험기간	2024.02~2025.07.
학교	서울대학교	전공	화학
키워드	생동차		

들어가며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번 62기 변리사 시험 합격자 이현호입니다. 올해 운이 좋게도 생동차로 합격하게 되었는데, 미약하게나마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합격수기를 남깁니다.

[변리사 시험 진입 계기]

대학원 시절 같은 연구실 선배들의 연구 성과 특히 작성 업무를 어깨너머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지식을 살리면 변리사로서 경쟁력이 있을 거 같아 변리사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2.5점	85점	82.5점

-민법- <점수: 92.5점>

【강의 및 교재】

- 김동진 강사님 민법 공방 중급강의, 민법공방연습풀이, 민법 핵심 급소체크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시기별 공부】

1~3월	4~6월	7~9월	10~12월	1~2월
각 분야 교재 1회독	산업재산권법 기본강의 자연과학개론 기본강의	민법 중급 강의	민법 공방 연습 기출문제 풀이	핵심 급소체크 각 분야 최종 정리 강의

【회독 방법】

- 판례 암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노트에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회독하였습니다.
- 특히 헛갈리기 쉬운 시기, 기한, 약의, 과실, 증명책임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암기 내용이 휘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반기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

- 당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 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틀린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해서 틀리게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이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기출문제 17개년 치를 전부 풀어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85점>

【특허법】

- 강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으며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순으로 수강하였습니다.
- 특허법의 경우 조문과 판례 강의를 위주로 수강하였습니다.

【상표법】

- 김영남 강사님의 기본 강의,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상표법의 경의 특허 디자인과는 다른 독특한 법리들이 많아 이것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암기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김웅 강사님의 기본 강의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특허와 비슷하면서도 살짝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 및 총정리】

- 최종 정리 이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기출문제 17개년 치를 전부 풀어보았습니다.
- 특히 산업재산권법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별도의 노트에 공통점, 차이점들을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82.5점>

【강의 및 교재】

- 엄기범, 이훈, 엄태석, 박준희 강사님의 중급 강의, 최종 정리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였습니다.
- 학부 전공이 이공계라 기본 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산업재산권법과 민법 수강에 시간을 돌렸습니다.

【물리】

- 물리의 경우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어서 유형별 공식 암기에 집중하였습니다.

【화학】

- 화학의 경우 특히 기체, 평형 파트에서의 계산 실수가 주요 실점 원인이어서 계산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생물】

- 생물의 경우 공식보다는 특정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빈출 영역을 중심으로 개념 암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지구과학】

- 지구과학의 경우 출제되는 문제의 스타일이 물리와 생물을 반반 섞은 느낌이 강하기에 공식과 개념을 균형 있게 암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 및 총정리】

- 최종 정리 이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기출문제 17개년 치를 전부 풀어보았습니다.
-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특히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시험 전 5~10개년 치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타-

【공부장소】

- 1차 준비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만, 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하기보다는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왜 틀렸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강의 듣는 주간, 문제 푸는 주장을 섞어가면서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문제풀이 방법】

- 1차 시험의 경우 60, 7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개론에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따라서 상기한 기출문제 푸는 주간에 실제 시험을 보듯이 시간을 재가면서 시간 조절 연습도 함께 하였습니다. 실전에서는 지구과학부터 문제를 풀어 시간을 많이 벌고 이후 물리 화학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49.33점	54.66점	57점	68.66점

-민사소송법-

〈점수: 49.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 이창한 강사님 2차 기본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기초GS, 실전GS B형 수강하였습니다.
- 교재
 -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진도별 기출문제 핸드북>, <민사소송법 조문집>을 구매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민소법 기초	민소법 기초	민소법 사례	민소법 기초GS	민소법 실전GS 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 동차생만큼 처음으로 접한 민사소송법이기에 2, 3월에는 평일에는 민사소송법 수업 전후로 하여 해당 강의 내용 예습과 복습을 하였습니다. 특허와 상표도 GS는 처음이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했지만, 강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월요일에만 특허, 상표 GS 복습을 하고 남은 4일 동안은 민사소송법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후술할 특허, 상표와는 다르게 별도의 암기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암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처음 보는 개념들에 익숙해지는 것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강의를 현장에서 수강**하여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수업 종료 후 바로 물어보면서 이해력을 높여나갔습니다.
- 4월 말 민사소송법 사례 강의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암기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장소도 집에서 스터디카페로 옮기고 매일 최소 10시간 정도는 스터디카페에 있었습니다.
- 암기의 시작은 <사례 민사소송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통합 민사소송법>이 자세하지만 방대하고, <사례집>이 실제 기출 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차생 입장에서 접근하기 더 쉬웠습니다.
- 이후 6월, 7월에는 <통합 민사소송법>으로 돌아와 암기의 디테일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초, 실전 GS에 출제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회독 방법】

- 이창한 강사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례 민사소송법>을 회독할 때 문제만 나온 페이지를 보고 답안 초안을 작성해 보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대부분의 목차를 누락했지만 기죽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만약 다시 2, 3월로 돌아간다면 <사례 민사소송법>을 **미리 구매**하여 이 시기부터 암기를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6월 이후 <통합 민사소송법>은 GS 출제된 부분-파란색 박스-검은색 박스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회독하였습니다. 다만, 동차생인 입장상 시간적 제한이 있어 검은색 박스 부분은 거의 회독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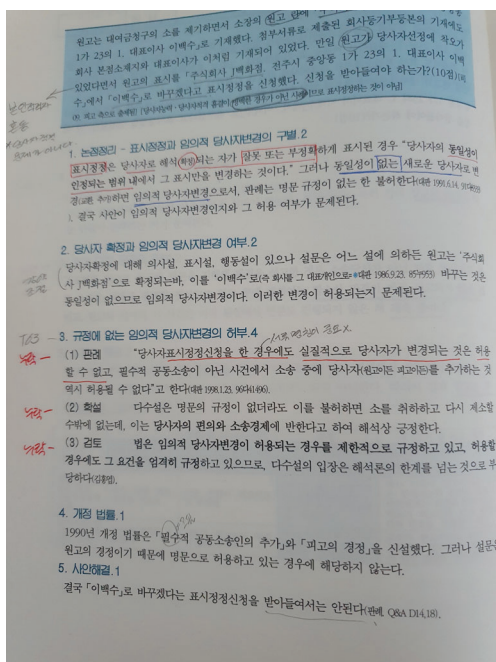


그림 1

<사례 민사소송법> 회독의 모습

이 앞에 있는 문제만 있는 페이지에서 문제를 풀고, 누락된 목차는 별도로 “누락”이라 표시하였다.

중요한 키워드는 **색깔 있는 볼펜으로 강조**하였다.

【암기 방법】

- 쓰면서 암기하는 유형이기에 빈 A4용지나 학원 답안지에 책 내용, GS 정답지를 마치 프린터기로 출력하듯이 직접 써가면서 암기하였습니다. 다만 호불호가 갈릴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 변리사 2차 시험처럼 답안을 전부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글씨 교정 및 필속을 높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써가면서 암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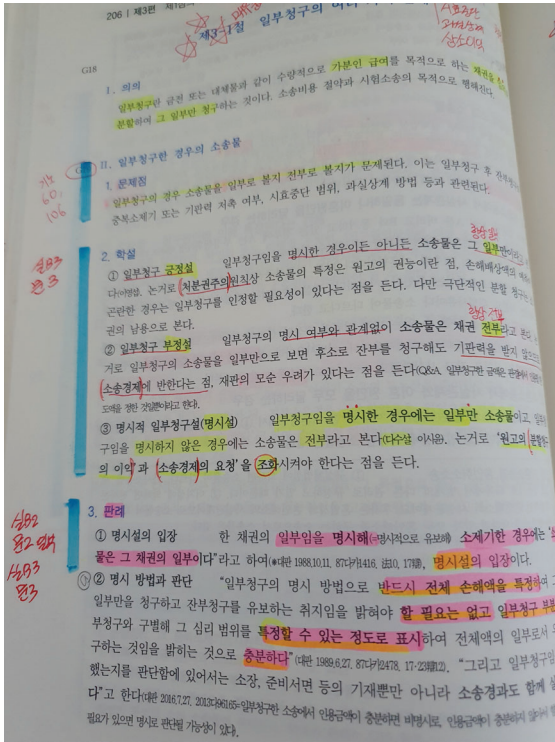


그림 2

〈통합 민사소송법〉 회독의 모습

GS에 표시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옆번호를 표시하였다. 중요한 키워드는 색깔 있는 볼펜으로 강조하였다. 공부 초기에는 형광펜 사용을 남발한 편이었는데, 이후 회독을 고려하면 자제하는 편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동차생으로서 민사소송법을 대한 자세】

- 1차 시험의 합격을 좌우하는 과목이 자연과학개론인 것처럼, 2차 시험의 합격을 좌우하는 과목은 민사소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사소송법의 방대한 양 (특히 학설, 판례와 검토의 논거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올바를 상황에서 현출되는 것)은 동차생으로서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1차 시험에 떨어졌다면 다음 1차 시험 준비기간 동안 민사소송법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특히 여건이 허락된다면 기초, 실전 GS 수업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창한 강사님께서 스스로 정리해 별도의 노트를 만드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법 공부를 하면서 만든 별도의 서브노트가 생각보다 효율이 높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터라 서브노트 만드는 것은 경계하였습니다. 연습장에 쓰면서 암기했던 것은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나면 바로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4월 이후 공부시간 배분】

- 4월 말에 민사소송법 이론 강의가 끝나면서 스터디카페에서 본격적으로 매일 수험 공부를 하였는데 (주말은 GS 강의를 있으므로 제외) 처음에는 매일 약 10시간 (오전 11시~ 오후 11시, 50분 공부 10분 휴식을 시간 재가면서 지킴, 저녁 식사 시간 1시간 제외)를 민소 5시간, 특허, 상표 2시간, 디자인보호법 1시간씩 투자하였습니다.
- 그러나 6월에 민사소송법 실전 GS 시작 이후에는 그동안 암기한 정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총 10시간 중 처음 2시간은 특허 상표를 1시간씩 공부하고 디자인보호법은 30분, 나머지 시간은 모두 민사소송법에 투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루 순수 공부 시간의 60~70% 정도는 민사소송법에 투자하는 것이 동차로서 민사소송법 점수 방어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특허법- <점수: 54.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 박형준 강사님의 기초 GS 플러스, 실전 GS B형, 최신판례강의, 기출 GS를 수강하였습니다.
- 교재
 - <준특허법 mini> 8판을 구매하였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특허법 기초GS+	특허법 기초GS+	특허법 기초GS+	특허법 기출 GS	특허법 실전GS B

【시기별 공부 및 암기법】

- 등차 기간
 - 2월 개강 첫 주 개론 수업 이후 곧바로 그다음 주부터 GS 쓰기 연습에 들어가기에 당장 쓸 내용을 암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업 진도표를 보고 그 주에 해당하는 총알 내용을 암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3월쯤부터 GS 점수가 떨어지면서 이 방법론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원인을 나름 분석해 본 결과 열심히 총알 내용을 암기하여도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을 꺼내어 써야 하는지 모르는 문제 - 즉 판례나 학설의 **위치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후부터는 삼각형 형태의 공부(기본서 챕터의 대목차 -> 중목차 -> 소목차 -> 이하 판례나 학설, 요건 내용 순으로 암기, 1회독 때는 대목차만, 2회독 때는 대목차+중목차, 3회독 때는 대목차+ 중목차+소목차...순으로 암기 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형태, 책의 페이지를 가리고 목차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4월 기초 GS 플러스 종강 이후 5월에는 기초 GS 내용 복습과 함께 기출 GS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기출 GS 강의에서 연습했던 점이라고 하면 실제 시험에 사용된 거친 표현의 문제를 읽고 문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 베이스 문제가 아닌 단문이나 임의의 상황을 가정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적절히 필요한 내용을 바느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 6월에는 실전 GS를 수강하며 기존의 암기한 내용을 써 내려가고, 누락한 부분은 다시 보충하고 다시 외운 걸 다음 수업에 써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암기의 '두께'를 두껍게 해 나갔습니다.
 - 7월에는 책은 가볍게 회독하면서 **암기한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기출, 실전 GS를 복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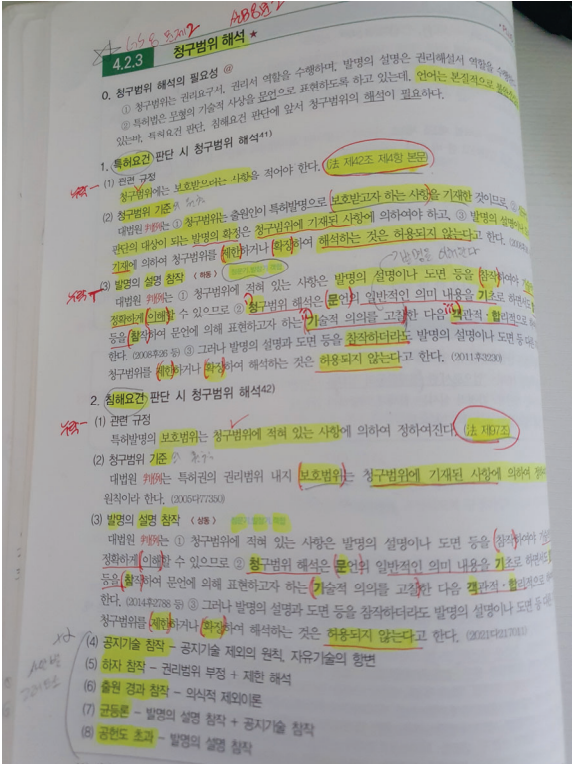


그림 3

<준특허법 mini>회독의 모습

GS 기술 여부를 페이지 상단에 표시하였다.

암기를 하면서 자주 누락하는 부분은 누락이라 표시하였다.

중요한 키워드는 색깔 있는 볼펜으로 강조하였다. 공부 초기에는 형광펜 사용을 남발한 편이었는데, 이후 회독을 고려하면 자제하는 편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GS 복습]

- 문제를 처음부터 다 푸는 것이 아니고, 1, 2, 3, 4번 문제를 각각 6분, 4분, 6분, 4분 시간을 정하고 <목차+들어갈 내용 짧게 요약>만 작성하고 답안과 비교하여 누락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여 암기하는 식으로 복습하였습니다. 특히, 상표에 투자되는 시간 2시간 중 [20분 작성, 40분 답안 비교 누락 부분 암기, 다음 1시간은 상기한 교재를 삼각형 형태로 암기]하는 식으로 특히, 상표법 공부를 매일 진행하였습니다.

-상표법- <점수: 57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 한경훈 강사님의 기초 GS 플러스, 실전 GS B형, 최신판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교재

- <점> 제 6판, <선> 제 4판, <피날레> 제 4판을 구매하였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상표법 기초GS+	상표법 기초GS+	상표법 기초GS+	상표법 실전GS B	

【회독 방법】

- 상표법의 경우 <피날레> 교재가 다른 과목에도 비슷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압축적이고 직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피날레> 교재를 중심으로 회독을 진행하고 덧살을 붙이는 것을 <점> 교재로 보강하는 식으로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 전술한 GS 복습 방법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피날레>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피날레> 교재가 구성된 방식으로 GS 복습을 하였습니다.
- 상표법의 경우 커리큘럼상 6월 이후에 강의가 비기에 실전 GS로 끌어올린 품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주된 방점으로 하고 이후 복습 과정에서 다른 과목보다 GS 복습에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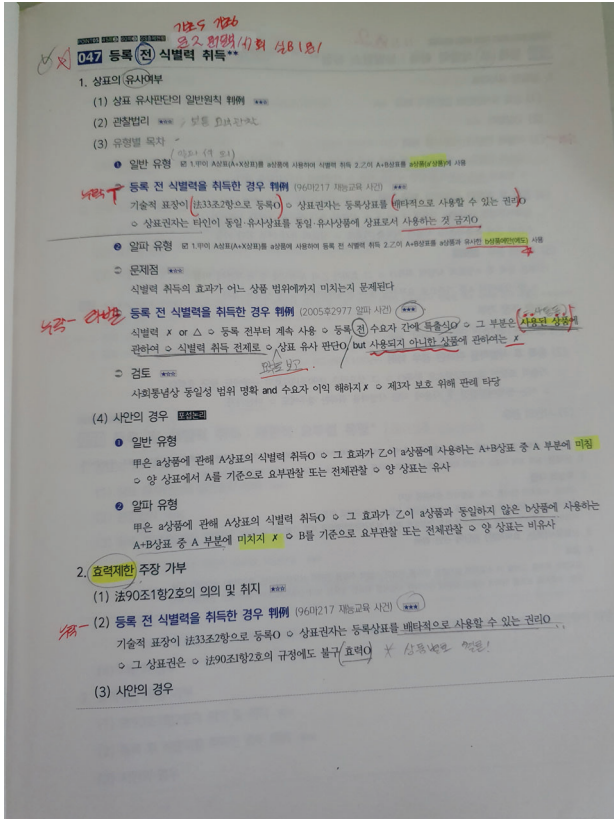


그림 4

<피날레> 회독의 모습

GS 기출 여부를 상단 기록란에 표기하였다.

암기를 하면서 자주 누락하는 부분은 누락이라 표시하였다.

중요한 키워드는 색깔 있는 볼펜으로 강조하였다.

【GS 점수를 대하는 자세】

- 기초 GS 때만 하더라도 GS 점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엑셀 파일로 통계를 내어 자신의 총점, 등수와 최고점과의 차이를 그래프로 그리고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약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암기에 더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실전 GS에 들어가고 나서는 기득 이상 수험생과 같이 점수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동차생이어서 등수가 좋지 못했고, 출제도 진도 순이 아니고 전 범위여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 돌이켜본다면 너무 GS 점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약점이 어느 부분인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척도 정도로만 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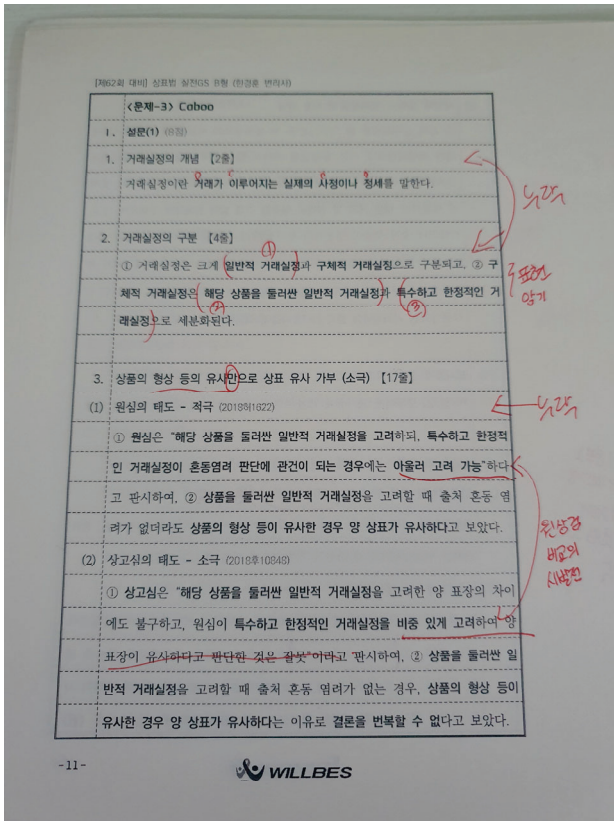


그림 5

GS 종료 후 답안 해설 전 복기의 모습

GS 종료 후 10분간 쉬는 시간 동안 제공된 모범답안지를 읽으면서 **누락한 부분을 표시**하였다. 제출한 답안지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68.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 김웅 강사님의 기초 GS, 실전 GS를 수강하였습니다.
- 교재
 -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 제 2판을 구매하였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디보법 기초GS		디보법 실전GS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 김웅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목이라고 경시하지 않고 4월 기초 GS 수강 이후에는 매일 최소 1시간, 정말 못해도 30분씩은 기본서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 GS 자료가 생기고 나서는 GS 복습 50%, 기본서 회독 50%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 선택과목은 무엇보다 얇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부를 이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이후 시간을 적게 투자할지언정 아예 디자인보호법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공부 방법은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공부했는데 유독 디자인보호법이 잘 나온 이유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웅 강사님께서 중요도 높다고 짚어준 부분에 시간 투자 비율을 높이고, 전술하였듯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공부한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회독 및 암기 방법】

-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의 경우 매 챕터 가장 앞부분에 목차가 따로 모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암기하고, 그 후에 각 목차에 들어갈 내용을 암기하는 식으로 (상기한 삼각형 형태의 회독법과 같은 맥락) 회독과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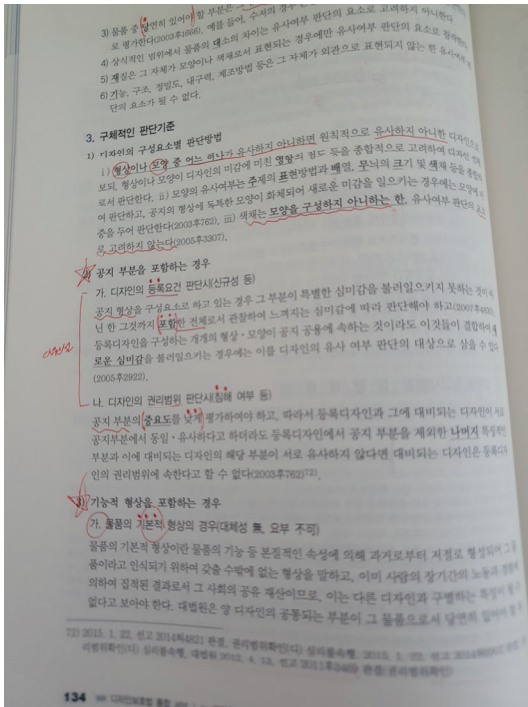


그림 6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 회독의 모습

중요한 키워드는 색깔 있는 볼펜으로 강조하였다.

디자인보호법은 무엇보다도 끊기지 않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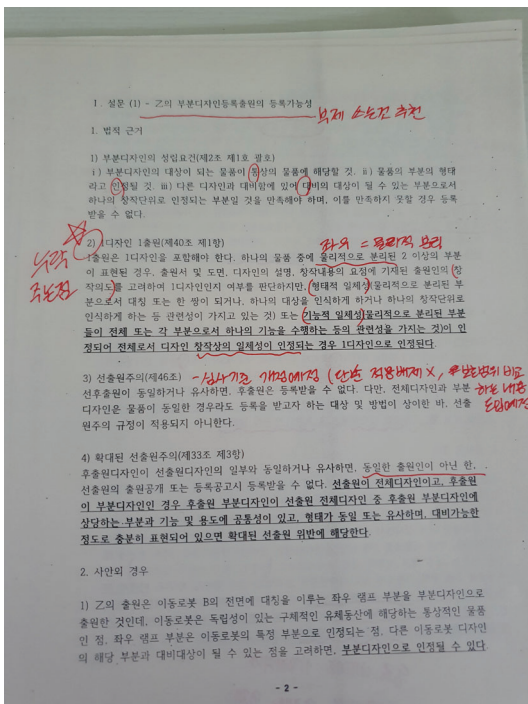


그림 7

GS 종료 후 답안 해설 전 복기의 모습

GS 종료 후 10분간 쉬는 시간 동안 제공된 모범답안지를 읽으면서 **누락한 부분을 표시**하였다. 제출한 답안지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이후 강평에서 있었던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기도 추가하였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19페이지	약 18자	중목차가 끝날 때 마다 1줄 비움	세로 높이의 2/3 정도
특허법	19페이지			
상표법	19페이지			
선택과목	19페이지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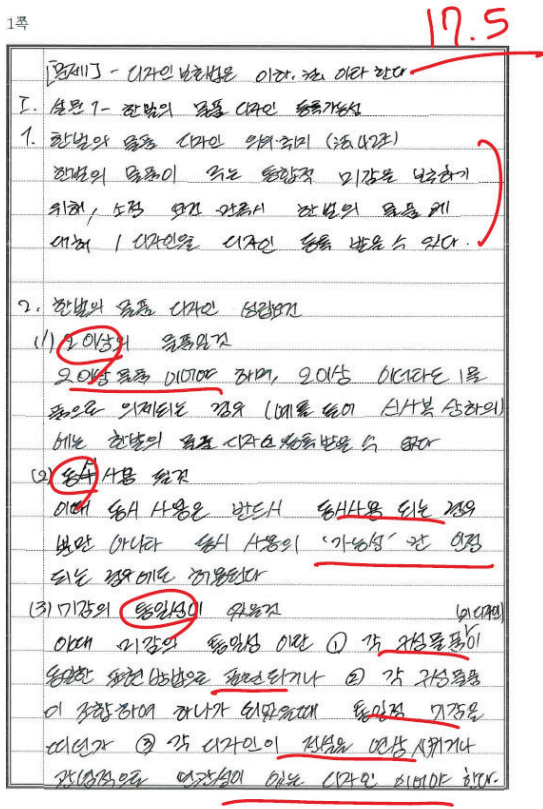


그림 8

작성한 답안지의 예시

대목차 옆에는 여유가 된다면 부제를 달아주었다.

중목차에 해당하는 단락이 끝난 후에는 줄바꿈을 하였다.

중간중간 키워드에는 작은따옴표를 붙여 강조하는 느낌을 주었다.

GS 초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였지만, 시간 소모와 불편함이 있어 이후 두 줄로 굵고 수정하였고,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하였다.

【글씨 노하우】

- 한경훈 강사님께서 수업 중에 알려주신 “백강고시체”에 대해서 찾아보고 관련 책을 사서 글씨 연습을 하였습니다.
- 전술하였듯 쓰면서 암기하는 타입이어서 글씨 교정에는 별도 노력은 들이지 않았고 암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씨 연습이 가능했습니다. 1달 정도 안에 교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수험 기간 초기에는 필속이 느려서 애국가 1절을 40~50초 이내에 다 쓸 수 있도록 여유가 있었을 때 연습을 간간히 했습니다.
- 그러나 글씨 연습에 너무 매몰되어 암기나 회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사용한 펜】

- 제트스트림 몸체에 제브라 젤 잉크 0.7mm를 끼워 사용하였습니다.
- 오랜 시간 펜을 잡다 보니 중지가 아파서 다이소에서 파는 펜그립도 끼워 사용하였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 하위 목차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설문“에 해당하는 대목차를 로마숫자로 표시하고, 주요 논점들을 중목차로 잡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그 밑에 조문이나 요건, 판례 등을 소목차로 하여 쌍괄호 숫자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괄호 숫자를 소소목차로 사용하긴 했으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하위 목차로 내려갈 거 같은 경우에는 소목차까지만 잡고 그냥 원문자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 저는 기초 GS 수강할 때부터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바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중목차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문제지에 간략히 쓰고 소목차 수준은 답안을 작성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견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기초 GS 때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대목차에는 여유가 된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부제를 썼습니다.

【과목별 전략】

- 기본적인 전략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최대한 따라 했습니다.
- 상표법의 경우 사안 포섭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된 만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요건이나 판례를 과감히 생략하거나 사안 포섭 안에 판례나 요건을 녹여내서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 특허법의 경우 가끔 특정 상황에 대한 조치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답안에 쓰려고 너무 애 쓰기보다는 출제자가 상정할 법한 상황들을 위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특히 민사소송법의 경우 설문에 주어진 **배점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 (5점에 1페이지, 1점당 대략 4줄)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2, 3월에는 점수에 따른 분량 배분을 못해서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의식하고 연습한다면 충분히 점수 배분하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타-

【시간 관리】

- 기초 GS 때부터 반드시 2시간 이내에 작성 완료하고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2시간이 끝나면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 문제별로 36분/24분/36분/24분 배정하여 시간을 맞추었고, 못해도 **2문제를 1시간에는 반드시 끊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 2차 시험기간에는 별도로 체력 관리를 한 적이 없지만, 1차 준비하면서는 시험 한 달 전까지는 10개월 정도 헬스장을 꾸준히 다녔습니다. 이때 그나마 다져놓은 체력이 이후 이어진 2차 시험 준비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멘탈 관리는 특별히 한 건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장소】

- 그전까지는 집에서 공부하는 타입이었는데, 집에서 공부할 때 집중력의 한계를 느끼고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스터디】

-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듯이 2차 시험과목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차생끼리 스터디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내용을 암기하는 역효과가 나올 것 같아 지양하였습니다.

[휴식]

- 일과를 “8:30 기상, 11시 공부 시작 23시 공부 종료 12시 취침” 이렇게 보냈는데 11시 공부 시작 전까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것저것 하면서 휴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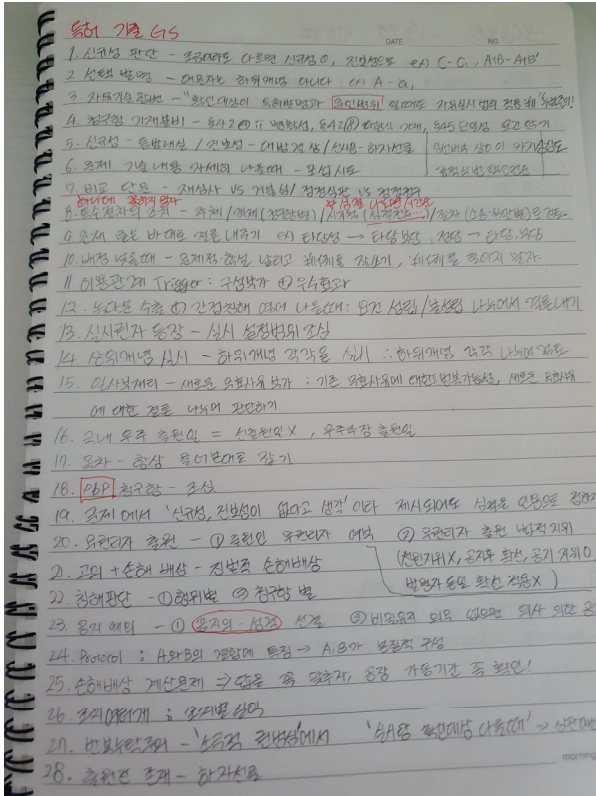


그림 9

한줄 오답노트의 모습

GS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별도로 1 줄 이내로 오답노트를 작성하였다.

실제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눈으로 훑어 같은 실수를 실전에서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별도 노트가 아닌 포스트잇 등을 사용하여 회독하는 책에 붙여놓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마치며

우선 훌륭한 강의를 제공해 주신 윌비스 변리사학원과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정상 변리사 시험 관련 정보를 얻을 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학원과 강사님들께서 제공해 준 정보와 공부 꿀팁들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에게 믿어주고 지탱해 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고 수험생 시절 얼굴 한번 보자면 나와 주고 밥이랑 술도 사준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비스 변리사학원을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과 응원의 말씀 하면서 긴 글 마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